

한 만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화와 반복을 매개로 한
시물라크르(Simulacres)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현 주

우화와 반복을 매개로 한
시물라크르(Simulacres)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 만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현 주

인 준 서

이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1년 5월에 “Two Rabbits ★ 두 마리 토끼” 라는 주제로 전시된 본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특성을 분석,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내면에 새겨져 있고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은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간접경험에 의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 지어 어느새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게 된다. 본인의 작품은 토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토끼들이 어린 시절 부터 나의 눈앞에 보이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자라면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토끼 우화들에 의하여 토끼의 이미지, 즉 도망 다니고 잡아먹히고 하는 불쌍한 피조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내안에 자리잡아 버렸고 그것이 그림의 대상으로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리라. 이렇듯 토끼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방시켜주고 싶다는 바람이 나의 의식속에 혹은 무의식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다. 트라우마를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 여러 이론과 성찰을 접하면서, 앤디 워홀이나 자크 라캉이 말한 반복(repeat)의 기능이 나의 작업에 잘 접목됨을 발견하였고 불경의 반복적 구성과 삼천배의 성찰에서도 동일한 느낌을 가진다. 앤디 워홀이나 자크 라캉에 있어서 반복은 트라우마를 입은 실재(the real)를 가려주어 보이지 않게 하거나 숨겨주는 역할을 하거나 망각하게 하여주도록 작동한다. 이 이론에 흥미를 느끼면서 나는 토끼를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찾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서 반복하여 방아를 찧듯이 토끼를 반복하여 그려나갔다. 그려나가면서 토끼는 트라우마를 잊어 갈 것이고 토끼를 내면에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 자신도 트라

우마를 잊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보드리야드는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를 시물라크르라고 명명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가상실재, 즉 시물라크르의 미혹속이라고 하였다. 나는 보드리야드의 이론을 실험하기로 하였다. 우화와의 오랜 대화를 거쳐 토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알았고 그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반복하여 토끼를 그리면서 이제는 토끼의 실재의 껍데기를 벗기고 시물라크르가 되게 한 것이었다. 드디어 모든 트라우마는 사라지고 토끼는 해방되는 것이다. 나는 그려 나가면서 토끼가 아니라 토끼인형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던 나의 무의식이 토끼의 시물라크르를 아름다운 인형 모습으로 그려지게 한 것이다. 토끼가 아름다운 토끼인형 모습의 시물라크르가 되어 예쁘고 빛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인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던 2가지 논의 즉 “그림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에 대하여 하나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림이란 시물라크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실재를 잊거나 실재를 사라지게 하여 주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작품을 함에 있어 아크릴과 유화기법을 사용하였다. 성질이 반대되는 두 가지 재료가 한 화면 안에서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는 작품의 배경공간을 하나의 색면으로 표현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이 작품의 배경공간은, 모든 것 즉 모든 색이 합일되어 단순화되는 곳, 바로 우주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설치는 작품 하나하나가 우주라면 그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장도 역

시 우주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주제에 맞는 흐름이 되도록 배열하여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나의 이번 실험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기를 기대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내장된 기억, 심리적, 정신분석학적 접근, 종교적 성찰에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본인 스스로와 관람자에게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실험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느끼게 하여주었다는 즐거움을 가지면서, 여기서 발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창작 작업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4
1) 우화와의 대화	4
2) 반복의 심리학	9
3) 시물라크르(simulacres)로의 접근	12
4) 베아트릭스 포터(Beatrix Poter), 윌 블라스(Will Bullas)의 작품분석을 통한 본인 작품의 객관성 부여	17
2. 작품의 형식적 특성	22
1) 대상물과 형태의 상징성	22
2) 조형적 전개와 공간의 단순성	27
3) 전시공간에의 작품의 설치를 통한 의미전달	30
3. 작품 분석	33
III. 결론	55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차

- 【작품1】 I am a rabbit, flying rabbit, Conte, 128×32cm, 2011
- 【작품2】 Hey mountain rabbit! rabbit, rabbit,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as you are hoping hoping,
Acrylic painting and conte, 60cm diameter, 2010
- 【작품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crylic painting and conte and
korean paper on canvas, 4 circles with 41cm diameter, 2011
- 【작품4】 Bye!, Acrylic and oil painting, 130×130cm, 2011
- 【작품5】 토끼가 물 쏟아서 생긴 얼룩, Oil painting and conte,
2 circles with 41cm diameter, 2011
- 【작품6】 아이고 허리야, Acrylic and oil painting, 40cm diameter, 2010
- 【작품7】 은토끼 구하기(은도끼), Acrylic and oil painting,
41cm diameter, 2010
- 【작품8】 신호등, Acrylic and oil painting, 3 circles with 40cm diameter,
2010

【작품9】 데굴데굴, Acrylic painting and conte, 80cm diameter, 2010

【작품10】 대한민국 파이팅, Acrylic and oil painting,
3circles with 36cm diameter, 2010

【작품11】 real 달토끼, Acrylic and oil painting, 55cm diameter, 2010

【작품12】 Rabbit milk, Acrylic and oil painting,
3 circles wih 31 diameter, 2010

【작품13】 월봐, Acrylic and oil painting, 2 circles with 40cm diameter, 2010

【작품14】 언니토끼랑 우주에서 온 아기토끼의 인사,
Acrylic and oil painting, 2 circles with 55cm diameter, 2010

도판 목차

- 【도판1】 Albrecht Durer, <A young hare>, 1502
- 【도판2】 Lucian Freud <Rabbit on a chair>, 1944
- 【도판3】 Beatrix Poter, <Rabbits>
- 【도판4】 Beatrix Poter, <Rabbits>
- 【도판5】 Beatrix Poter, <Rabbits>
- 【도판6】 Beatrix Poter, <Rabbits>
- 【도판7】 Beatrix Poter, <Rabbits>
- 【도판8】 Will Bullas, <The hare club>, oil on canvas
- 【도판9】 Will Bullas, <Mr. Harry buns>, oil on canvas
- 【도판10】 Will Bullas, <The hare of the dog>, oil on canvas
- 【도판11】 Will Bullas, <Bad to the Bun>, oil on canvas
- 【도판12】 Will Bullas, <A fool and his bunny>, oil on canvas

I. 서론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려오면서 늘 머릿속을 맴도는 2가지의 논의가 있다. “그림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와 작가들이 논의와 이론을 남겼지만 내 머릿속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을 아직 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과문하기에 아직 그들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까마득하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내 자신이 그들의 수준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들의 주변이나 근처까지라도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 보면 뭔가 느껴져 오는 것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서 그리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것이고 그림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을 느끼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이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의 답일까? 나의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새로운 실험을 하여보기로 하였다. 과학자들이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지만 정작 성공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듯이 실험은 그저 실험일 뿐이다. 과학은 명쾌한 해답을 기대하는 것이고 명쾌한 해답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지만 예술은 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예술에서의 실험은 끝이 없을 수도 있고 허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험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험을 하여나가면서 느끼고 반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으로

즐겁고 거기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과감히 실험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차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미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나는 “그림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라는 나의 오랜 논의를 의식적으로 나의 작품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논의라고 하기보다는 명제라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할 지도 모르겠다. 이 2가지 명제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어 보기 위한 시도로서, 작품의 대상과 주제를 설정하고 그려나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나의 실험에 대한 스스로의 고찰을 기록하여 나갈 것이다.

본론 제1장에서는 작품의 대상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서술하고자 한다. 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인지 혹은 나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늘 가라앉아 있었던 것인지 그 대상은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게 그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어서 제1장의 중반부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적 측면에서 나의 실험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서구의 학설들을 주로 논의하였고 아울러 불교에서의 성찰이 이러한 서구의 학설들과 다르지 않음을 또한 논의하여 나의 실험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제1장의 마무리로서 나의 실험과 비교될 수 있는 서구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나름으로의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 실험을 하여보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앞서간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그들과 일부라도 동화됨을 느낌으로서 스스로 위안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물들의 상징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작품에 도입한 기법과 그를 위하여 어떤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였는가를 설명하며, 작품의 배경공간을 하나의 색면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게 된 이유를 기술한다. 끝으로, 작품들을 전시장에 어떠한 의도하에 어떠한 흐름으로 설치하였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14점에 대하여 작품별로 제작배경, 제작동기, 심리적, 정신분석학적고찰 등의 내용적 분석과 표현방법등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여 작품의 감상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림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라는 나의 논의에 대하여, 내 스스로 실험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의 창작활동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에 그 의미를 두었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우화와의 대화

어릴 적 아장아장 걷는 아기였던 동생이 놀이공원의 꽃밭에 웅크리고 있던 토끼를 발견하곤 그 토끼를 잡겠다고 두 팔을 휘저으며 달려들었다. 토끼는 옆의 작은 숲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동생은 여전히 하하하 웃으며 토끼의 뒤를 쫓고 있었다. 토끼보다 아주 조금 밖에 안 큰 아기가 자기를 쫓아오니 토끼는 도망가고는 있었지만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화사한 꽃이 만발한 꽃밭과 싱그런 녹음이 만개한 작은 숲속을 사뿐사뿐 뛰어다니는 새하얀 토끼와 그걸 잡겠다고 뒤쫓거리며 쉼 없이 쫓아가는 나의 조그만 동생을 바라보며 아빠엄마도 웃었고 나도 웃었는데 그 화사한 봄날에 내 눈앞에서 시간은 토끼와 내 동생을 감싸며 정지하고 있었고 나는 꿈속에 있듯이 아련했는데 동생이 되돌아와서 나를 안아줄 때에야 다시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학교때 처음으로 미술대회에 나갔는데 그 장소가 우연히도 동생이 어릴 적 토끼를 잡겠다고 쫓아갔던 그 놀이공원이었다. 너무나 참가자가 많았고 그러니 참가학생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의 차들이 넘쳐나서 모든 장소가 만원이었기에 대회를 마치고 나서 빠져나가는 것이 큰일이었다. 차를 운전하는 아빠는 계속 투덜대고 있었고 나도 마음만큼 잘 그리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차 앞으로 뭔가 달려드는 것 같았고 아빠는 놀래서 급정거를 했다. 하얀 토끼가 우리 차 앞을 가로 질러 뛰어가는데 동시에 화려한 공작이 우리 차 앞 유

리를 스쳐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은 제대로 잘 보지는 못하였지만 차 앞자리에 앉았던 엄마 아빠가 놀라고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보니 내가 순간적으로 본 것이 맞았다는 것인데?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다는 아쉬움과 자학으로 무겁고 까맣던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는 느낌이었고 창밖을 가득 메운 5월의 싱그러움이 눈앞을 감싸들자 나는 눈앞에서 시간이 멈추며 아련한 꿈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언젠가도 이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하며, 엄마아빠는 좋은 동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준 것은 길조라고 좋아했는데 얼마 후 결과가 통보되었고 나는 그 권위 있는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내가 그림을 계속하기로 작심한 출발점이었다.

정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동물을 그릴 기회는 많지 않았다.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싶다고 늘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지를 내 스스로도 꼭 꼬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막상 무엇을 그리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은 종종 허전하곤 하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토끼를 그리기 시작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더구나 토끼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귀엽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웃겨 보이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겁먹은 것 같기도 한 이 살아있는 생물을 그냥 그리기 시작했다. 토끼가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나의 무의식속의 밑바닥에서 늘 웅크리고 있었던 것일까?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지 토끼는 나와 함께 그냥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겠지.

귀엽고 웃겨 보이는 하지만 토끼는 불쌍해 보이고 화난 것 같고 겁먹어 보이는 것이 주된 이미지이다. 토끼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어릴 적부터 토

끼우화를 듣고 읽고 해서 내안에 각인되어 있는 토끼의 이미지가 나를 압도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꽤 오랫동안 토끼의 우화와 무의식속에서 대화를 하여 왔던 것이리라. 이솝우화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들었던 것은 “토끼와 개구리” 이었다. 토끼들이 온갖 짐승들에게 겁먹고 사는 약자의 생에 대해 서로 힘들어 하다가 너무 우울해져서 결국 다 같이 물에 빠져 죽기로 하였다. 다 같이 시내에 뛰어들기로 한 토끼들은 시냇가로 함께 달려 나갔다. 그러자 시냇가에서 놀던 개구리들이 토끼들이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 이리저리 도망쳐서 물속에 숨어 눈만 내놓고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었다. 토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보다 약한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죽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들 산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토끼의 늘 도망 다녀야 하고 잡아먹혀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바뀐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적인 우위를 잠시 느끼고 안도하는 잠시의 착각이었을 뿐 그들의 처지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원초적으로 토끼의 생물로서의 상황은 애초부터 있었던 그대로인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토끼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운명적으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는 토끼에게 별주부는 더욱 모진 정신적 배신을 안겨준다. 바다의 용왕이 불치병에 걸리자 용궁의 의사들은 토끼가 산에 사니까 도저히 가서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끼의 간이 치료제라고 둘러대었다. 그런데 우직한 별주부가 자기는 비록 느리지만 육지에서 도 걸을 수 있으니 가서 토끼를 데려 오겠다고 죽어가는 용왕에게 충성을 보인다. 성공하면 큰 출세를 기대하면서.

산으로 가서 토끼를 만난 별주부가 쓴 방법은 거짓말이었다. 엉금엉금 죽을 힘을 다해 산으로 올라오는 별주부를 보면서 토끼는 참 부지런하고 인내심 많

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별주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용궁은 낙원이고 용궁에 가면 큰 벼슬을 받아 평평거리며 살 수 있다는 별주부의 이야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늘 쫓기고 숨고 잡아먹혀야 하는 희망 없는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끼의 처지로서는 물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벼슬에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다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기뻐할 것이다. 토끼는 거짓말에 속아 별주부를 따라 용궁으로 갔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간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즉 죽음이었다.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된 토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하여 올 수 있었던 산에서의 경험을 살려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대응하게 된다. 자기의 항문을 보여주며 여기로 간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데 이번에 올 때 간을 빼어 놓고 왔으니 산으로 돌아가서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토끼는 구사일생을 하긴 하지만 그 착해 보이던 바다생물에게 속임을 당해서 죽을 뻔 했었다는 엄청난 배신감에 절망했고 그 정신적 트라우마는 깊숙이 새겨졌을 것이다.

다시 이솝우화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거북이가 토끼에게 산꼭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하는 내기를 건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내기가 성립할 수 있었을까? 거북이가 보기에는 토끼가 절대로 산꼭대기까지 가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토끼가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확률도 높고 털로 덮힌 토끼는 그 무더운 날씨에 탈진하여 쓰러질 가능성도 높았으니까.

어쨌든 멀리 앞서가던 토끼는 피곤해져서 나무그늘에서 잠을 자고 그걸 깨우지 않고 몰래 지나쳐 기어간 거북이가 승리를 한다. 거북이는 게임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주었어야 한다. 토끼도 거북이는 상대가

전혀 안되는 존재 라는걸 모르고 게임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 산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 같이 놀아주자고 하는 거북이가 고마워서 게임에 응한 것인데, 가장 약한 존재인 자기를 이기고야 말겠다고 자는 걸 깨우지 않고 몰래 자기만 올라가서 승리를 하다니. 토끼에게 또 다시 정신적 상처가 덧씌워졌고 이렇듯 겹겹이 각인된 정신적 트라우마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말이나마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을 치기도 하였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망각하여 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하였을 것이다. 살기 위하여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토끼는 이 땅을 떠나 달로 간다. 달에는 토끼를 괴롭히고 잡아먹는 짐승도 없고 배신하고 절망을 주는 별주부나 거북이도 없다. 자상하게 생긴 계수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토끼를 늘 감싸 안아 준다. 그리고 절구가 있다. 토끼는 절구공이를 들어 절구를 찧는다. 절구공이를 들어 절구바닥을 찧다보니 그저 계속하게 된다. 아아 모든 것이 점점 잊혀져 간다. 트라우마도 잊혀져 가고 시간도 망각되어 지고 눈앞이 아스라이 몽롱해지며 토끼 자신도 잊혀져 간다.

아 나는 무엇일까? 꿈속에 들어간 토끼는 노래를 듣는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토끼는 달에 산다. 매일 절구를 찧으며 모든 것을 잊으며 꿈속에서는 옹달샘 노래를 듣는다. 옹달샘 노래가 들리며 나타나는 옹달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다. 그것은 거울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토끼는 거기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했을까? 토끼가 본래의 자기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물결이 만들어내는 찌그러진 모습에 놀라서 울지나 않았을까? 거울에 비

친 나의 모습이 과연 나의 실재인가?

2) 반복의 심리학

반복(repeat)이 지닌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앤디 워홀은 외상적 리얼리즘(trumatic realism)이라는 견지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의 유명한 모토인 “나는 (차라리) 기계이기를 원한다”에서 워홀은 텅빈(blankness) 주체가 아닌 외상입은 주체(기계이고 싶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여기서 주체는 확정적 주체가 아닌 숨겨진 주체)¹⁾ 즉, 현상을 정복할 수 없다면 철저히 현상 안으로 침투하여 그것을 표면으로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듯 반복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강박적 고찰이 일어나 의미를 반감시키고 결국 공허함(망각)만 남는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워홀은 외상에 대한 모방적 방어로서 그에게 외상을 준 것의 본성을 취하는 것이다. 즉, 나 역시도 기계이고 나 역시도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거나 소비하며 나도 내가 받은 만큼 좋게 혹은 나쁘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워홀은 과거 2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점심(캠벨 스프)을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사회에 의하여 작동되는 반복(repeat)에의 강요를 선제적(preemptive)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들린다. 즉 워홀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그 같은 강요를 거부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거기에 가담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에 전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외상을 받은 주체와 강박적인 반복에 관한 이러한 인식들은, 워홀의 이미지들에 있어서의 반복이 지닌 역할을 다시 설정해 준다. 워홀의 “나는 따분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진술과 “나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정확히 같은 것이 되는

1) 헬 포스터(1996),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현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p.200

것들을 좋아한다” 라는 유명한 모토에 이어서 “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정확히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함없이 정확한 것을 좀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그것의 의미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며, 여러분은 점점 더 공허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진술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 반복(repeat)의 의미는 고갈이면서 또한 그 영향에 대한 방어이기도 한 것이 된다. 이제 위홀의 진술은 결론으로 치달아 “당신이 으스스한 그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면 그 그림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않게 된다.” 에 이르게 된다.²⁾ 분명히 이것은 반복의 기능인 것이다.

자크 라캉은 실재(the real)를 외상(trauma)의 견지에서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의 세미나 “무의식적인 것과 반복(The Unconscious and Repetition)” 에서 라캉은 반복을 통해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데 이미지 속에서 보이는 실재(the real)는 외상적인 것에 의하여 가려지지만 결국은 실재를 지적하며 그것은 화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즉 외상적인 것을 실재적인 것과의 어긋난 만남이라고 정의하였다. 어긋난 것이기에 실재적인 것은 재현될 수 없다. 그것은 반복될 수만 있으며 실은 반드시 반복될 것에 틀림없다는 것이다.³⁾ 그리고 물론 반복은 재생산이 아니다. 그리고 반복은 언제나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곤 한다.

결국, 앤디 워홀이나 자크 라캉에게 있어서 반복(repeat)은 외상(trauma)을 입은 실재(the real)를 가려주는(잘 보이지 않게 숨겨주거나, 희미하게 보이도록 가림막 노릇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잊어주게(망각하게) 작동한다.

2) 헬 포스터(1996),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현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p.202

3) 자크 라캉(2008), 자크라캉 세미나2, (맹정현, 이수련 역), 새물결, p.203

이제, 나는, 절에 와서 법문을 청하는 중생에게 삼천배를 우선 하라고 권한 성철스님을 생각한다. 보통은 백팔배가 일반적이고 백여덟번의 절하기도 너무나 힘든 것인데 밤을 새워 삼천배를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무수히 절하기를 반복하라는 것이었을까? 삼천배를 완수해낸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삼천배를 마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한없이 영영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철스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법문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도 법문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실컷 울고 나서 웃음 띤 얼굴로 절을 떠나갔던 것이다. 무심속의 반복(repeat)이 모든 것을 감싸주었고 치유하여 주었고 잊게 하였고 카타르시스를 주었던 것이다. 그 자리가 극락이었으리라. 금강경(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 논하는 무아(無我)에 이른 것일까?⁴⁾ 석가세존이 말씀하신 “나는 많은 중생을 구원하였다. 그러나 내가 구원한 중생은 아무도 없었더라”⁵⁾ 의 깨달음에 한걸음 다가간 것일까? 금강경은 경전 중에서도 두껍고 금강경을 주석한 주석서가 수백가지 이듯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은 32분(chapter)이나 되는 경구들이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실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왜 반복하였을까? 중생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하여 라고 한다면 너무 순박한 해석이고 아마 무아(無我)를 깨닫게 하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반복이었을 것이다.

내 의식 속에 혹은 내 무의식속에 들어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던 토끼를 어느 날부터인가 그림 그리게 되면서, 토끼를 온통 둘러싸고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풀어주고(해방시켜주고) 싶었다. 토끼는 내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 토끼는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토끼는

4) 김용옥(1999),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 통나무, p.62

5) 김용옥(1999),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통나무, p.169

6) 김용옥(1999),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통나무, p.263

나일 수도 있고 나는 토끼일 수도 있는 것인데 토끼의 트라우마를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실은 나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더욱 그 방법을 찾아 내 머릿속의 여행을 계속하였던 것일까?

앤디 워홀과 자크 라캉이 실험하고 설명하여준 반복(repeat)의 역할과 작동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나는 토끼를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찾은 느낌이었다. 나아가 성철스님의 삼천배와 금강경의 무아(無我)를 생각해보니 이를 그대로 접목하여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솟구쳤다.

그래, 나는 반복하고 반복하여 토끼를 그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서 반복하고 반복하여 방아를 찧듯이 나는 토끼를 반복하여 계속 그럴 것이다. 내 그림속의 토끼가 다 잊어가는 동안 산속의 토끼도 용궁의 토끼도 달 속의 토끼도 다 잊어갈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나도 다 잊어갈 것이다.

3) 시물라크르(simulacres)로의 접근

장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의 저서 “시물라시옹”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제는 시물라크르(simulacres)와 시물라시옹(simulation)이다.

실재(the real)가 실재가 아닌 가상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이 시물라시옹이고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을 시물라크르라고 한다. 보드리야드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가상실재, 즉 시물라크르의 미혹속인 것이다.⁷⁾ 시물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중국에는 실재보다 가상실재(가상

7) 헬 포스터(1996),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현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p.12

현실)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룡이 실제 존재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공룡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보드리야드에 의하면, 과거의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반면 오늘날 기호는 객관적 대상을 지시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시하며, 대상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창조한다. 게다가 기호가 창조한 대상은 자연적 대상을 능가한다. 더 실재적이며 탁월하다. 자연적 대상보다 이상적이며, 그 대상에 대하여 roll model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연적 대상을 기준으로 기호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기호가 생산한 대상에 비추어 자연적 대상을 표상한다. 기호체계가 자연적 대상을 비추는 거울이며 인간은 그 거울 없이는 사물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기호의 질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게다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자율적 영역을 이루고 있다. 기호는 자연적 지시대상으로부터, 그리고 주체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있다는 것이다.

보드리야드가 말하는 시물라시옹은, 기호에 의해 자연적 실재를 능가하는 시물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과, 마침내 자연과 인공의 구분마저 소멸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시물라크르는 시물라시옹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사적 사물인 동시에 독창적 사물,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있게 한 조건과 생산주체를 뛰어넘는 사물, 그래서 새로운 시물라시옹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이다.

보드리야드에 의하면,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반영이다. 그런데,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킨다. 그리고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인들 간에 어

떠한 사실성과도 무관하다. 이것이 바로 지시대상도 테두리도 없는 끝없는 시물라시옹의 순환 속 시물라크르다.

보드리야드는 현대소비사회는 상품이 아닌 광고를 소비한다고 말한다.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재보다 영화, 드라마, 뉴스등 영상매체가 전하는 이미지를 더 사실처럼 여긴다. 곧 사람들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 낸 이미지를 먹고 사는 셈이다.

시물라시옹 현상은 네티즌들이 즐겨 쓰는 이모티콘(emoticon)과 여러모로 닮았다. 이모티콘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특수 언어로 원래 있던 기호의 의미를 파괴하여 재구성한 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웃는 표정이나 우는 표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찬가지로 시물라시옹도 특정대상을 가리키던 상징체계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복제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는 현실을 모방하고 재현한다. 물론 작가의 주관적 관점과 의식에 따라 재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물이나 사진처럼 완벽하게 본뜨지 못한다. 마치 추상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대상을 생략하고 변형해 인간의 욕망과 결합된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한다.

그런데 보드리야드는 이미지야말로 사실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이미지는 오로지 배제된 시물라크르에 존재할 뿐이고 시물라크르가 끊임없이 복제되는 과정이 바로 시물라시옹인 것이다. 그러면서 보드리야드는 대표적인 시물라시옹의 모델을 디즈니랜드에서 찾았다.⁹⁾ 디즈니랜드는 각종 놀이기구와 환상적인 공간 연출을 이용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유희의 현실을 끌어냈다.

8) 장 보드리야드(2001), 시물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p.154

9) 장 보드리야드(2001), 시물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p.39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원지인 디즈니랜드가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디즈니랜드하면 미국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디즈니랜드가 미국의 이미지이자 상징으로 떠오르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실제 미국은 점차 사라져가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열광 열풍은 예뻐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과시할 수 있는 매체 수단의 발달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들추어 보면 현대 소비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광고 전쟁과, 연예산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스타 즉 새로운 시뮬라크르에 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복제의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상상속의 공간에서 허구의 인물들이 살아 움직인다. 또한 스포츠 중계현장은 실제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사실은 아주 과장되고 흥분되게 순간을 반복적으로 확대해 준다. 현실에서 벗어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고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진다. 보드리야드는 이러한 현상을 파상실재(hyper-real)이라고 하였다. 이제 세상에서 진짜는 사라지고 파상실재만이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 나는, 반야심경의 공(空,수냐)을 떠올린다.¹⁰⁾ 시뮬라크르가 있었고 시뮬라시옹 작용으로 시뮬라크르가 또 생겨난다. 수냐(空)는 아무 것도 없다거나 텅빈 공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緣起(원인에 의하여 일어난다)라는 의미이다.

10) 김용옥(1999),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통나무, p.59
틱낫한(2003), 틱낫한스님의 반야심경, 장경각, p.6-25

원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일어나고(생겨나고) 그에 의하여 다시 다른 것이 일어나는(생겨나는) 순환이 끝없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시물라시옹은 시물라크르를 만들어내면서 끝없이 순환하고 있으니 수냐(空)에 다름 아니지 않을까? 장 보드리야드는 공즉시색(空卽是色)의 경지에 도달하였던 것일까?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래서 나는 시물라크르를 실험하고 싶어졌다.

그래, 내가 그리려는 토끼, 깊숙이 각인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 지조차 못하고 절망의 눈빛으로 포기하고 있는 그 토끼에게 나는 시물라시옹 작용을 가하리라. 그래서 그 토끼를 시물라크르로 만들리라. 그러면 토끼의 실재는 사라지고 그것에 침투되어 각인되어 있는 트라우마도 사라지리라. 나는 실험을 시작하였다. 우화(寓話)와의 오랜 대화를 거쳐 토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알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잊게 하여주기 위하여 반복하여 그리고 또 그리면서 이제는 시물라시옹 작용을 가하여 토끼의 실재의 껍데기를 벗기고 시물라크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모든 트라우마는 사라지고 토끼는 해방되리라. 나는 그리고 또 그랬는데 그려 나가면서 토끼가 아니라 토끼 인형(doll)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끼를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을 뿐 아니라 예쁘고 멋있고 깨끗하고 명랑하고 자신감에 짝 차서 늘 웃고 있는 토끼로 만들고 싶었던 나의 잠재의식이 시물라크르를 아름다운 인형 모습으로 그려지게 한 것이리라. 나는 나의 잠재의식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시물라크르는 이제 포근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갔다. 토끼는 아름다운 토끼인형 모습의 시물라크르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토끼는 이제 트라우마를 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실재에서 탈피하여 시물라크르가 됨으로서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한 것이리라. 나의 실험은 성공한 것일까?

4) 베아트릭스 포터(Beatrix Poter), 윌 불라스(Will Bullas)의

작품분석을 통한 본인 작품의 객관성 부여

나는 나같이 토끼의 우화와의 대화를 통해 토끼의 트라우마를 느끼고 그것을 잊혀주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토끼를 그리고, 결국은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토끼의 시물라크르를 그린 작가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나는 시물라크르의 실험을 하면서 나 나름으로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이 내게는 중요한 것이긴 하였지만, 처음 실험을 하는 처지로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 또는 인식과 비교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많은 작가들이 토끼를 그렸다. 르네상스의 거장 알브레히트 뒤러도 유명한 토끼그림 【도판1】을 그렸다. 1502년에 그려진 이 작은 그림(25*23cm)은 어린 토끼가 두발을 모으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정면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 종교화(성화)가 압도하던 시대에 이런 정물화를 그렸다는 것이 더욱 이 그림을 귀하게 보이게 한다.

뒤러는 인간으로서 충족되지 않는 공허감과 큰 자존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된다. 나는 이 갈색의 작은 토끼그림에서 자존심을 바짝 세운 이 토끼가 뒤러 자신의 시물라크르였을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거장 뒤러는 이 시물라크르에 만족하였을까?

루시안 프로드(Lucian Freud)는 1944년에 【도판2】 “의자위의 토끼(Rabbit on a chair)를 그렸다 토끼는 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반쯤 감고 잠자는 듯 누워있다. 이 토끼 그림은 위에 언급한 뒤러의 “어린 토끼(A young hare)”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뒤러의 토끼가 생동감 있고 자존심을 바짝 세우

고 있는 사실주의적인 이미지 이듯이 프로드의 토끼는 선명한 육체의 선과 매우 세밀하게 표현된 털의 묘사에서 생명의 정수가 숨 쉬고 있음을 사실적(realistic)으로 느끼게 해 준다. 뒤러의 토끼에 비해 400년 후에 그려진 프로드의 토끼는 400년간의 문명의 그림자, 특히 현대문명의 이미지에 뒤덮여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수히 반복되는 가로, 세로의 선으로 그려진 의자는 토끼를 완전히 포위하듯이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문명의 실타래에 얽혀 있는 피조물의 모습이나 다름없다. 뒤러의 토끼를 오랫동안 보아 온 프로드는 400년이 흐른 뒤 현대 문명이 시물라크르로 뒤덮혀 가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뒤러의 “어린 토끼”의 시물라크르로서 “의자위의 토끼”를 그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의 의식 속에 틀어박혀 있던 뒤러의 토끼(실재)는 사라져 버렸고 이제 현대문명에 동참하는 시물라크르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토끼를 그린 많은 작가들 중 나의 실험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지어 내게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작가는 베아트릭스 포터와 윌 블라스였다. 시물라크르에 방점을 찍지 않고 토끼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나의 내면으로부터의 시작점이 토끼였고(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사라져간 실재(the real)도 토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끼를 그린 작가를 찾았던 것이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베아트릭스 포터(1866-1943)는 거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나 외롭고 쓸쓸한 소녀시절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호수지방에서 보낸 휴가기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했고, 이 기억이 그녀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상상력 넘치는 수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1893년 옛 가정교사의 아들이 병으로 눕자 용기를 주기 위해 “피터”라는 이름의 토끼가

등장하는 그림이야기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가 바로 토끼 “피터 래빗” 시리즈의 시작이다. 이후 그녀의 동물이야기는 계속 출판이 되었고 피터 래빗 시리즈는 23권에 이르렀다. 베아트리체 포터의 동물이야기 그림은, 생생한 동물들의 모습과 조용하고 소박하며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밝고 생명력 있게 그려져 있다. 포터가 그린 많은 토끼들이 의인화 되어있다. 나는 여기서 우화(寓話)를 떠올린다. 우화란 것이 동물(또는 식물, 무생물 등)을 의인화하여 인간과 세상사를 풍자하거나 교훈을 주는 장르이다. 포터는 우화를 읽고 많이 알고 있었고 그녀가 나서 자라난 광활한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에 이 우화를 접목시킨 그림을 그려나갔다. 자연보호의 선각자로서 일생을 자연보호주의자로서 살았던 그녀가 그린 그림에 나타난 토끼는 포근하고 부드럽고 평안하다.

【도판4】에서 토끼부부는 양산을 쓰고 도시락을 들고 피크닉을 가고 있다. 뭔가 반가운 소식이 씌어진 전보를 읽으면서 행복해 하고 있다. 포터의 사랑하는 약혼자는 급사했고 포터는 그를 못 잊어 47세까지 혼자 살았다. 포터는 이 그림에서 자신과 약혼자의 시플라크르를 그린 것이다. 실재는 사라지고 행복한 가상현실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있다. 【도판6】에는 많은 토끼들이 그려져 있다. 다섯 마리의 토끼가 사방을 살피며 각기 다른 자세로 앉아 있고 다른 많은 토끼들은 바깥을 조심스러이 살피며 고개만 살짝 내민 채 굴속에 숨어 있다. 여기서 늘 쫓기며 살며 종종 잡아먹혀야 하는 토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나는 느낀다. 포터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이고 동물을 한없이 사랑한 그녀는 토끼를 반복(repeat)하여 많이 그림으로서 그리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그려지고 있는 토끼들도 트라우마를 잊어가도록 하였을 것이다. 【도판3】에서는 토끼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인간의 옷을 입고 의인화되어 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앉아 어디론가 쳐다보고 있다. 따뜻한 봄이 오기를,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인간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스러운 동물로 돌아

가고 싶어 들판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실재(the real)을 상실하고 시뮬라크르로 그려졌지만 그 무의식 안에는 실재가 형체 없이 여전히 담겨있는 것인가? 인간의 옷을 벗으면 동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도판5】 와 【도판7】 은 토끼들이 자기들이 경작한 채소를 수확하면서 기쁨에 넘쳐있다. 자연이주는 풍성함과 유복함과 어울려 화면에 크게 그려진 토끼가 참 여유로워 보인다. 토끼는 자연이 주었던 가혹함을 극복하고 자연과 어울리어 자연이 아낌없이 주는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토끼는 이제 트라우마를 완전히 잊고 소멸시켜버리고 행복해져 있는 것인가?

윌 블라스는 “Fun Art”로 알려져 있는 미국작가이다. 그는 베트남에서 군복 무시에 연필로 동료병사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애인에게 보내곤 하였다. 제대 후 유화를 전공하였고 부인의 격려에 힘입어 전문적인 작가의 길로 나간다. 블라스의 작품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생산품, 예를 들면 티셔츠, 기념카드, 커피잔, 실크의상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블라스는 많은 동물을 회화(戲畵)하여 재미있게 그렸고 그런 독창성으로 사랑 받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들을 현대사회의 인간으로 의인화하여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쉽게(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이) 다가가게 하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토끼그림들도 많은 토끼가 의인화되어 있다. 블라스도 분명 우화에서 모티브를 찾아 토끼를 의인화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그린 토끼 그림 자체가 이제는 우화(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도판8】 에서 토끼 2마리는 많은 마티니 술잔에 주눅 들어서 압도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마티니 술잔은 현대문명인데,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억지로 마셔야만 현대사회에 어울려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윌 블라스는 마티니 술잔을 반복(repeat)하여 그림으로써 현실을

잊어버려보려 하고 있고, 주눅 들어 있는 토끼로서 현대인의 시물라크르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도판10】에서도 유사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여러 토끼가 맛있는 칵테일을 든 커다란 검정개를 향해서 겁먹은 듯이 앉아 있다. 커다란 검은 개는 권력자로서 어리석은 대중(토끼들)에게 말을 잘 들으면 칵테일(힘, 돈)을 조금 마시게 해 주겠다고 한다. 검은 개도 토끼들도 본 모습(실재)를 잃어버린 시물라크르가 아니겠는가? 블라스는 버니(Bunny, 거위의 이름)를 많이 그렸다. 【도판12】에서 버니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큰 키로 우뚝 서서 초라한 작은 토끼를 내려다보고 있다. 토끼는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버니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약자의 모습이다. 기독교층과 서민층은 여기서도 인간의 본모습을 잃어버리고 시물라크르가 되어 있다. 【도판9】는 위에서 언급한 뒤러나 프로드의 토끼를 떠올리게 한다. 초롱초롱한 눈과 분홍빛이 감도는 부드러운 피부, 생기가 돌고 풍성한 하얀 털은 충만한 자신감과 강한 자존심을 보여준다. 뒤러와 마찬가지로 블라스는 자기 자신의 시물라크르로서 토끼를 그린 것이다. 【도판11】을 보자. 토끼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귀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고 한쪽 눈은 애꾸가 되었지만 안에는 USA(초강대국, Superpower)라고 씌어진 셔츠를 입고 밖에는 고급외투를 입고 있다. 험난한 현대사회에서 열심히 투쟁하여 성공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눈은 어딘지 공허하다. 블라스 자신의 시물라크르인가? 모든 현대인의 시물라크르인가?

2. 작품의 형식적 특성

1) 대상물과 형태의 상징성

이번 본인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사용되어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토끼, 원, 흰색, 달이다. 본인은 토끼가 묘사된 여러 우화에서 토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읽었고 그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실험으로서 이번 작품의 작업을 하여나갔다. 그러나 본인이 주목한 토끼의 정신적 트라우마, 즉 항상 쫓기고, 속임을 당하고, 잡아먹히고 하는 불쌍한 피조물에게 새겨져 있는 트라우마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것이 토끼의 모든 것을 상징할 수는 없다. 나의 작업은 토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두운 상징을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이것이 해방됨으로써 토끼의 다른 많은 밝은 상징은 더욱 빛이 나게 될 것이고, 다른 어두운 상징은 이 역시도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종종 토끼는 몸집은 작지만 영특한 동물로 그려진다. 위기를 돌파해나가는 꾀보토끼의 이미지는 전통예술 곳곳에도 스며있다. 달과 토끼의 관계는 긴밀하고 유구하다.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전래의 민간 의식에서 유래한다. 고구려벽화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벽화에는 토끼와 두꺼비, 계수나무가 한 조합으로 등장한다. 옛날 사람들은 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이상향이 있다고도 생각했다. 다른 고구려벽화에는 달에서 방아를 찧는 모습의 옥토끼가 표현되어 있다. 이 토끼가 찧고 있는 것은 보통의 떡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것 같다. 고구려 벽화속의 토끼는 달의 정령으로서 불사약을 제조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달 속 계수나무는 불사목(不死木)이다. 계수나무의 어린 껍질과 어린 가지는 예로부터 혈액순환과 해열에 주요한 한약재로 사용

되었다. 달 속 토끼가 쪼는 선약의 재료가 계수나무인 썸이다. 조선 후기 한글 고소설인 별주부전에서 별주부가 남해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생간을 구하러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토끼의 간 역시 불로장생의 영약이라고 믿었던 것이리라. 토끼와 달과의 관계는 인도의 고대 범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범어에서는 달의 다른 이름이 토끼였다고 한다.

불교설화에서 토끼는 자기희생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당서역기에서 제석천을 위해 스스로를 소신공양하는 토끼의 이야기가 나온다. 제석천이 노인으로 변신하여 여우, 원숭이, 토끼에게 먹을 것을 청했을 때, 여우는 생선을, 원숭이는 과일을 가져왔으나, 빈손으로 돌아 온 토끼는 불 속에 제 몸을 던져 제석천을 공양했다는 이야기다. 토끼의 소신공양에 감동한 제석천은 토끼의 형상을 달에 새겨 후세의 영원한 본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조선 후기 문학, 음악, 미술에 토끼가 자주 등장한다. 판소리 여섯마당이나 열두마당 가운데 하나인 수궁가, 한글 고소설인 별주부전이 대표적이다. 잡가의 하나인 토끼타령, 판소리계의 동물 우화소설인 토끼전등이다.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 용궁에 갔다가 빠져나오는 별주부전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민족설화이다.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가 외교사절로 활약할 때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려 죽게 되었을 때 김춘추는 고구려의 총신 선도해에게 뇌물을 바치고 살려주길 부탁한다. 이때 선도해가 던지시 알려준 것이 별주부전에 관한 기록이다. 김춘추가 토끼에게 배워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이야기인데 토끼의 지혜로움을 상징하고 있다.¹¹⁾

토끼는 종류가 많고 회색토끼, 갈색토끼, 흰색토끼, 흑갈색토끼 등 색깔도 다

11) 이어령(2010), 십이지신 토끼, 생각의 나무, p.15-32

양하다. 하지만 나는 이번 작업에서 흰색토끼만을 그리기로 하였다. 나는 토끼를 해방시켜보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므로, 아니 나를 해방시켜보려고 그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흰색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연상들은 밝음과 빛과 태양이다.¹²⁾ 그 다음에 구름, 눈이 연상된다. 음식으로는 우유와 밀가루가 주된 연상이고 그에 덧붙여 달걀과 소금이 언급된다. 분필, 석고, 대리석, 수정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흰색 진주도 특별한 범주를 형성한다. 흰 장미로 흰색의 연상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 흰색 꽃들은 마리아의 상징이며 동시에 많은 불교 만다라의 주된 상징이다. 흰색의 동물로는 먼저 비둘기가, 그 다음으로는 양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다. 이 두 동물들은 희생제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흰소는 성스러운 상징이다. 백마는 용맹과 리더십의 상징이다.

칸딘스키는 “흰색은 모든 색채, 모든 그림의 표징과 본질이 사라져버린 세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세계는 우리에게 너무 높아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곳에서부터 엄청난 침묵이 내려온다. 파괴할 수 없는 끝없이 펼쳐진 차가운 장벽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흰색은 절대적인 커다란 침묵으로서 우리의 정신에 작용한다.” 라고 흰색에 대하여 묘사하였다.¹³⁾

요약하면, 흰색은 색의 한계성 그리고 분할되지 않은 빛의 총체로서 모든 색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흰색은 단순함과 소박함을 상징한다. 모든 것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색이면서, 흰색은 개방과 자유를 의미한다. 결국 해방의 색인 것이다.

12) 에바 헬러(2002), 색의 유혹, (이영희 역), 예당, p.60-62

13) 바실리 칸딘스키(2000),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p183-185

나는 이번 그림에서 캔버스를 거의 모두 “원”의 형태로 하였다. 앤디 워홀과 자크라캉의 반복(repeat)과 장 보드리야드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실험하여 토끼의 트라우마를 해방시켜가는 작업을 함에 있어 원의 상징성이 잘 어울린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배구공에서부터 사탕, 선풍기 등 셀 수없이 존재한다. 그런데 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체의 동그란 모형을 다가 아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원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상징성을 나타낸다. 고대인 동굴벽에 새긴 원은 그들에게 악마를 물리치고 하늘의 힘이 깃들인 에너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원을 통해 자연과 신의 의미를 말하였으며 곤충들도 원 모양의 무늬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이 사용한 목적과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원이 가지고 있는 힘, 의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원이 끝없이 넓어 질 수 있는 그 모양처럼 누구에게나 특별한 언어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숫자 0이 모든 것의 시작, 기초라는 상징도 있다. 우리는 동그라미를 기점으로 하여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지구, 태양, 궤도, 우주까지도 원 모양을 하고 있다. 원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더 큰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원은 끝없이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점을 찍고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시작점과 끝이 만나면서 끝없이 돌아간다. 어디서 시작해도 항상 이전의 장소로 되돌아가서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계절조차도 변화 속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계속 순환하고 인생도 영원히 순환한다. 원은 그 안의 넓은 공간처럼 수많은 얼굴과 상징을 지니고 있다. 원

이 있어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인생은 연결된다.

나는 원의 상징성에 주목하여 작업을 계속하였지만 중심적인 대상이 토끼라는 점에서 토끼가 들어있는 원이 원이 아니라 달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곤 하였다. 달, 토끼, 절구질이라는 조합이 워홀과 라캉의 반복(repeat)론을 도입함에 있어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다.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고 있는 곳, 기울고 기울었다가 차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달이다. 달이 차고 기우는 까닭은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사이 태양빛이 닿은 부분만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둥근 보름달이 되는가 하면 반달 또는 눈썹 같은 초승달로 변하는 것이다. 달이 지구로 도는데 달은 언제나 똑같은 면은 지구로 향하고 있다. 달의 거듭되는 차고 이지러짐은 탄생과 죽음, 부활과 영생을 뜻하기도 하며, 서양에서는 광기가 달빛을 통해 머리로 스며든다는 설화도 있다. 농어촌에서는 생산력(달력)을 따질 때 달을 기준 삼았으며 농부들은 휘영청 달이 뜨면 열심히 일했고 어부들도 달을 보고 물때를 헤아려 물고기를 낚았다. 이와 같이 달의 상징은 태양의 상징과 더불어 우리의 삶 어느 곳에도 깃들여 있다. 달빛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 모든 것은 달빛에 젖어있다. 산이 젖고 사람이 젖고 길이 젖고 그리고 개울의 물빛이 젖고 있다. 이 세상이 가상실재, 즉 시물라크르라면 달빛은 그마저 다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2) 조형적 전개와 공간의 단순성

본인 작품은 아크릴과 유화기법이 사용되어졌다. 본인 작품의 기본 순서는 먼저 생각해놓은 토끼의 모습을 콘테를 사용하여 스케치한다. 그리고 배경을 깨끗하게 아크릴물감으로 칠하는데 단 토끼를 그릴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둔다. 그리고 여러 번의 아크릴 칠로 배경색을 완성한 다음 토끼를 유화로 그린다. 본인은 아크릴과 유화라는 성질이 반대되는 재료가 한 화면 안에서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본인은 작품의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재현에 목적을 두지 않고 느낌전달에 충실한다.

토끼를 그릴 때 붓은 Raphael사의 수채화용 새필 00호와 0호, 2호, 5호를 이용한다. 토끼 인형의 털을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물감은 Holbein사의 유화물감을 사용하고, 기름은 Maimeri사의 다마르¹⁴⁾와 holbein사의 테레핀¹⁵⁾을 2: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기름의 상태가 끈적이는 듯 하나 마르고 나면 촉촉하게 광택이 나며 그림이 투명한 느낌이 든다.

배경 아크릴 바탕칠은 Maimeri사의 아크릴물감과 물을 1:1비율로 섞어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 넓은 붓으로 캔버스에 칠해 들어간다. 아크릴은 여러 번 덧발라야 발색이 좋아지므로 최소한 5번 이상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잘 말린다.

본인 작품에서 배경공간은 하나의 색면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색면의 배경

14) 다마르: Dammar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수피(樹皮)에서 채취하는 천연수지로서, 다마롤산, α 및 β -레젠이 주성분이다. 니스·래커·연마제 등으로 사용된다.

15) 테레핀: Turpentine유화의 용제(溶劑)로서 사용되는 향기 있는 무색 휘발성유. 소나무과 식물 등 치에 상처를 주어 흘러내리는 생송진을 증류하여 만든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알려져 있었으나, 일반에게 회화용으로 제공된 것은 1400년경 부터이다.

공간은 우주공간이다. 그렇다 내 작품의 공간은 우주이다. 우주는 무엇일까? 수많은 과학적 이론이 우주를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된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 인류가 아는 것도 거의 없다. 나는 그저 우주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만다라에 끌리기 시작하였고 우주를 함의하면서도 단순함에 귀결하는 만다라를 나의 작품의 공간과 색면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만다라는 티벳의 밀교에서 발달한 불화의 일종이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동심원으로 그려나간 원형의 바퀴(圓輪)이다. 중심이 있고 이 중심으로부터 원의 모양으로 신성한 단과 부처, 보살 등을 바깥방향으로 그려 나간다. 즉 우주의 본질이 가득찬 원륜으로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만다라를 통해 자신과 삼라만상이 서로 상통하는 소우주의 세계,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포괄하는 대우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지고의 영역을 느끼게 된다. 즉, 중심과 본질을 얻어 모든 것을 갖추니 모자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다라를 표현함에 있어 색채는 도상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다라에 있어 색채는 대체적으로 백, 황, 적, 청, 녹(흑)의 5원색이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즉 백색은 안정과 정적을 상징하며 색면의 기본색으로 인식된다. 황색은 발전과 수명장수를 나타내며, 적색은 애정과 부부화합을, 청색은 밖에서 안으로의 귀의를 의미하고, 녹(흑)색은 생에 대한 휴식을 상징한다.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지, 수, 화, 풍, 공의 5대 원소에 대응하는 색이 황, 흑, 적, 백, 청의 5색이라는 의미도 있다. 결국 이 5색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우주의 색인 것이다. 나의 이번 작품의 공간이 우주를 의미하므로 나는 이 5색을 공간의 기본색으로 사용하였다. 우주의 5색이 빛으로 합쳐지면 흰색(무색)으로 수렴된다. 나의 작품의 색면은 모두 합쳐져서 흰색으

로 빛날 것이다.

승려들은 모래알갱이를 5가지 색깔로 물들여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다라를 완성하지만, 완성하면 한번 쳐다보고는 만다라를 훌트러 버리고 모래알갱이 무더기를 그냥 놓아둔다. 그 복잡하게 보이던 우주공간이 그 본질인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단순함이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번뇌를 넘어선 해탈이라던가 직관, 압축, 함축의 군더더기 없는 본질 등의 이야기가 된다. 단순성에 대한 미학적인 정의는 18세기부터 여러 이론서에서 논의되었다. 이 때 그 뜻은 간단한(simple)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연적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것, 원초적인 것, 순수함, 명료함, 전체를 개관할 수 있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사유에서 모든 것은 일목요연함에 달려있다. 이것은 또한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쉽게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그 자체로만 보아서 많은 매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다. 괴테도, “우리가 올바른 도상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소박하고 단순한 것, 원초적 상태에서 생겨난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보다 단순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장 단순해야 한다.”¹⁶⁾ 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탁월한 우주 이론들을 초월하는 통일장이론, 즉 우주는 하나의 통일된 법칙으로 단순할 것이라는 통일장이론을 찾을 것을 후세 학자들에게 과제로 남겼다. 공간은, 우주는 단순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나의 작품의 공간은 우주이다. 우주는 단순함이다. 그러니 나의 작품공간은 단순하다. 작품을 하나의 공간인 3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의 프레임은 우주가 되고 그 안에는 토끼가 살아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 배경 공간 안에는

16) 테니스 오버바이(2006), 젊은 아인슈타인의 초상, (김한영, 김희봉 역), 사이언스북스, p.510

토끼외의 사물을 배치하지 않는다. 온전히 토끼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김으로써 단순하지만 모든 이목에 토끼에게만 집중되도록 하였다. 토끼는 삼라만상의 상징이다. 삼라만상이 시물라크르이다.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복(repeat)에 의하여 트라우마를 잊고(망각하고), 더 나아가 실체의 껍질을 벗고 시물라크르가 됨으로서 마침내 해방되는 토끼를, 내 작품의 관람자들이 삼라만상으로 보아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주면 토끼는 해방되어 우주와 합일될 것이다.

3) 전시공간에의 작품의 설치를 통한 의미전달

작품 하나하나로만 의미전달을 하지 않는다.

설치를 통하여 의미를 다시 창조 한다.

이번 작품 하나하나가 우주라면 그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도 역시 우주가 되어야 한다. 작품 하나하나가 소우주라면 전시장은 대우주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소우주는 작은 것이고 대우주는 큰 것일까? 우주는 무한하다고 하니 소우주도 대우주도 무한한 것이고 결국 우주는 그저 하나의 무한공간인 것이겠지. 나의 작품들과 전시장은 서로 어우러지며 마침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 작품을 전시하면서, 최대한 주제에 맞게 배열하고 설치하여, 관람하여 주시는 분들로 하여금 나의 이번 실험에 대하여 무언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였다.

본인 전시에서 작품배열을 전체적으로 시계방향으로 설치하여 우주는 한없이 순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며 작품을 하나하나 보

며 작가와 토끼, 그리고 관람자는 서로 인사하고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

처음에 'I am a rabbit, flying rabbit' 이라는 작품을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천장에 가까운 위쪽 벽에 배열하여 우주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다시 가운데 쪽 벽으로 내려와 토끼6마리가 뛰놀고 있는 산토끼 노래를 의미하는 작품 'Hey mountain rabbit! rabbit, rabbit,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as you are hopping hopping' 으로 음악이 들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주의 소리, 우주의 하모니에 귀를 기울이며 다음 작품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 인사를 한다. 이 작업은 총 4개의 캔버스가 한 작품인데 세로방향으로 위에서부터 배열하여 관람자가 위에서부터 아랫방향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아래로 쳐다보게 된다. 인사를 하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따뜻한 교감을 갖듯이. 그 옆에는 원 형태의 거울을 설치하여 관람자와 마주한다. 작품과 같은 형태의 이 거울은 쳐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작품들 속의 토끼가 작가인지, 혹은 거울에 비친 자신인지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 옆에는 토끼가 손을 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Bye')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양옆에 빈 공간을 넓게 두어 외로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 옆에는 눈물을 의미하는 작업 '토끼가 물 쏟아서 생긴 얼룩'을 배치하였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넓게 비워두고 보통사이즈의 원의 형태를 다시 배치한다. 사람은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구부리고 손으로 마사지를 한다. 다음의 두 작품은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아이고 허리야' 다음 작품인 '은토끼 구하기(은도끼)' 는 위 아래로 어긋나게 배치하였다. 리듬감을 표현한 것이다. 옆으로 더 걸어가면 작품 '신호등' 으로 쉬어가게 한 다음, 옆에 '데굴데굴' 이라는 작품을 다른 작품과는

다른 방법으로 와이어를 연결해 벽에서 띄워 역동감을 주었다. 그 옆에는 캔버스 세 개가 하나인 ‘대한민국 화이팅’ 작품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여 재미를 주었고, 그 옆에는 ‘real 달토끼’ 라는 정말로 달을 의미하는 작품을 배치하여 이곳이 우주공간임을 느끼게 한다. 그 옆에는 ‘Rabbit milk’ 로 작은 세계의 캔버스가 한 마리의 토끼로 보여지게 위에서 아래로 세로방향이되 일열이 아니라 어긋나게 배치하였고 그 옆에 ‘뿔봐’ 라는 작품은 토끼가 마주보고 있게 배치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관람자에게 질문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언니 토끼랑 우주에서 온 아기토끼의 인사’ 작품으로 우주공간에서 떠나는 관람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전시장이 마무리 된다.

관람객이 어떻게 보아주셨는지 나는 아직 자신이 없다. 토끼그림의 반복(Repeat)적인 배치라는 전제하에,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관람객의 동선을 이끌어가는 방식의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작품 배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단순한 공간인 우주에 있는 토끼를 반복하여 자꾸 바라보면서 토끼의 트라우마 즉 우리자신의 트라우마를 잊어가면서 마침내 세상 모든 것이 시뮬라크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의도에 맞춰지고 있다. 과연 관람객들은 토끼를 잊고 자기 자신을 잊고 실체는 사라지면서 우주와 합일되었을까?

3. 작품 분석

【작품1】

이 작품은 토끼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다. 본인은 날아가는 토끼 즉 나는 토끼라는 말을 떠올렸다가 ‘나는 토끼’ 라는 말에는 ‘I am a rabbit’ 과 ‘flying rabbit’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본인은 이 작품에서 토끼를 시각적으로 아주 가볍게 표현하였다. 콘테만을 이용하여 살짝 번지게 함으로써 날아가는 토끼의 속도를 보여주었고, 아무 고민 없이 날아가고 있는 토끼의 가벼운 마음이 보여지게 하기위해 백색의 배경에 토끼를 선으로만 드로잉 하였다. 파랑계열의 선을 사용하여 토끼의 마음이 더욱 시원해 보인다.

토끼는 반복되어 그려져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 우주로 들어가면서 토끼는 모든 것을 잊고 실체를 상실하고 시플라크르가 될 것이다.

【작품2】

이 작품은 동요 산토끼를 표현한 그림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동요는 1928년 암울했던 일제시대 이일래 선생이 창녕군 이방면 소재 이방초등학교 근무 당시 학교 뒷산 고장난 기슭에서 평화롭게 뛰놀던 산토끼 모습을 보고 그려냈다고 한다. 우리도 산토끼처럼 자유롭게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항일사상과 동심이 담긴 이 노래는 이후 전국에 번져 아이들 사이에 널리 불리자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판단, 금지곡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테야

- 동요 '산토끼' 이일래

본인은 산을 의미하는 녹색 배경에 토끼 5마리가 원을 그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숫자5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나타낸다. 사지를 뺀 오각형의 별 모양을 한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다. 본인의 작업에서 본인은 항상 토끼가 나 자신일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시키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토끼 5마리를 그렸다. 5마리가 1마리이고 1마리가 5마리이다. 그저 하나의 시물라크르인 것이다.

【작품3】

이 작품은 신묘년(辛卯年) 새해에 그린 작품으로 토끼가 세배를 하는 모습이 4개의 캔버스로 나누어 토끼가 절을 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그려 배치하였다. 항상 토끼를 그리는 본인에게 2011년이 신묘년 이라는건 매우 반가운 사실 이었다. 3가지의 배경색으로 그려진 소우주들이 연속되어 있고 토끼는 그 소우주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는 가고 새해가 오고 다시 내년에 새해가 온다. 우주의 순환 속에서 토끼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주에 세배를 하며 경의를 표한다. 자기를 반복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자기의 본모습, 즉 시물라크르를 찾아가는 길일 것이다.

【작품4】

이 작품은 뒤돌아서서 떠나는 토끼가 손만 흔들어 남은 사람들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사람은 가끔 작별인사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다른 작업에 비해 큰 사이즈의 토끼의 뒷모습이 쓸쓸한 느낌을 더 부각 시킨다. 모든 것은 회자정리이다.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 나는 토끼이고 토끼는 나이니 나는 언젠가 어디론가 떠날 것이다.

【작품5】

이 작품은 상처받은 토끼의 내면과 겉모습을 표현하였다. 같은 포즈로 앉아있는 토끼를 한 마리씩 두 마리를 그렸다. 한 마리는 어둡게, 한 마리는 투명하게 표현하였는데, 어두운 토끼는 어두운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채색하여 슬픔이 가득찬 느낌을 주었고, 다른 한 마리의 토끼는 유화물감을 뭉개 회색하여 채색하여 눈물의 느낌을 주어 투명하지만 쓸쓸한 느낌을 부각 시켰다.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투명하지만 결국은 같은 토끼이다. 내면과 겉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이다. 내면의 트라우마는 투명하여져 잊혀질 것이고 겉모습으로 보이던 실체라는 것은 사라져 시물라크르가 남을 것이다.

【작품6】

이 작품은 본인이 허리가 아플 때 그린 그림으로, 본인이 허리에 통증을 느낄 때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토끼를 표현 하였다. 정신적 트라우마는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신과 육체는 결국 하나인 것이니까. 토끼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통증으로 느끼며 고개를 아래로 좀 떨구고 허리를 약간 숙이며 눈에 힘을 잃고 쉬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어 통증으로 나타나면서 트라우마는 결국 잊혀져 갈 것이다. 토끼는 망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통증은

유구한 시간에서 순간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작품7】

‘금도끼 은도끼’ 라는 우화의 제목에서 생각해낸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토끼는 위 아래로 점프를 하고 있다. 도끼질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본인은 토끼가 위 아래로 점프하는 리듬감을 주기 위해 같은 포즈의 토끼를 위치만 다르게 하여 배치하였으며, 위쪽에 떠있는 한 마리가 공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림자를 그려 넣었다. 이 우화는 인간이 거짓과 정직 사이를 오가고 있음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탐욕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고 탐욕을 절제하는 순간 정직하게 된다. 토끼가 점프하는 것이나 위아래로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 토끼가 이 두 가지 정신 상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을 다 잊고 우리의 본모습을 찾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주 속을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리라.

【작품8】

이 작품은 본인의 초기작업으로 신호등을 표현한 것이다. 본인은 신호등을 볼 때 항상 긴장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여 그 긴장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호등의 원색과는 다르게 파스텔톤의 색감으로 바꾸어 채색하여 편안해 보이게 하였다. 붉은 톤 원 안의 토끼는 빨간불을 뜻하므로 긴장해서 서있는 모습이고, 노란원안의 토끼는 그보다는 조금 긴장이 풀어진 듯한 모습을 그리고, 초록색의 원에는 편안히 앉아있는 토끼를 그림으로써 신호등을 바라볼 때의 긴장과 풀어짐을 표현 하였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신호등은 현대문명의 산물이다. 재미있게도 신호등의 3색은 만다라의 5색, 즉 우주의 5색중 컬러풀한

색깔들이다. 인생사는 컬러풀한 것이니 신호등의 색깔은 우리의 일상사와 잘 매치되어 있다. 색깔은 긴장을 주기도하고 긴장을 풀어주기도 한다. 토끼는 3가지 컬러풀한 색깔과 매치되어 긴장과 풀어짐(relaxation)을 오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작품9】

이 작품은 토끼6마리가 바닥에 누워서 양 옆으로 구르고 있는 모습이다. 누워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자까지 표현 하였다. 그림자의 색상은 토끼를 그린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표현하고 배경색도 같은 색상의 컬러를 파스텔 톤으로 바꾸어 채색하여 전체적으로 심플한 느낌이 들게 표현 하였다. 이 모습은 본인이 잠을 자기위해 누웠으나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여러가지 생각이 나기만 할 때 뒤척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토끼의 다리 또는 머리가 모두 원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여 구도에 안정감을 주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나를 잊는 순간이 잠이 드는 순간이다. 요에 누워 데굴데굴 반복하여 뒤척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망각의 시간이 오고 나는 꿈속에 들어가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 우주는 무언가 원의 중심같은 것을 향하여 커다랗게 회전하고 있다고 한다. 나의 토끼도 원의 중심을 향하여 회전하고 있다. 토끼가 반복하여 회전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가듯이 우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작품10】

이 작품은 2010년 월드컵당시 그린 작업으로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린 작품이다. 빨간색 파란색의 원은 태극 문양을 뜻하고 마지막 한 개의 원은 축구공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축구공의 흰색과 검은색이 빨간색 파란

색과 어우러져 세 개의 캔버스를 모아 배치해 두었을 때 태극기의 느낌을 주고 있다. 빨간 원 안의 토끼는 골대를 향해 공을 차서 슈트를 하는 모습이고 축구공 속의 토끼는 날아가는 모습이고 파란원안의 토끼는 골키퍼의 모습이다. 축구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탐진치의 3가지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끝이 있고 그 끝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토끼는 축구선수가 되어 또한 축구공으로 되어 축구경기를 신나게 하며 태극기를 몸에 감고 애국심도 표현하지만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다. 토끼는 잊기 위해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11】

이 작품은 계수나무 우화가 전하는, 토끼가 달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그 달 속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배경의 노란색은 달을 의미하므로 노란색에 은은한 펼감의 물감을 섞어 빛나게 표현하였다. 본인이 이번 작품을 하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반복(Repeat)을 잘 나타내기 위한 의도이다. 토끼들이, 즉 모든 생물의 기본인 암, 수 한 쌍이 절구바닥을 향해 끊임없이 절구질을 하고 있다. 외상(트라우마)의 지점인 절구바닥을 반복하여 찧어냄으로써 트라우마를 잊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트라우마를 잊게 될 것이다. 토끼들이 들어있는 아름답게 빛나는 노란 달은 토끼들에게서 뿜어 나오는 아우라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잊은 토끼에게서 아우라는 만들어지고 이것은 달 즉 우주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작품12】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토끼의 일부분을 해체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본인은 토끼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씩 그려 배치하였는데 토끼의 귀와

밭 그리고 꼬리이다. 배경의 색은 본인이 평소에 자주 마시는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흰 우유를 의미하는 세 가지 컬러들이 각 부위의 이미지를 경쾌하게 받쳐주어 재밌는 하모니를 이루어 내고 있다. 피카소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물의 해체는 결국 그 대상물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방안이다. 토끼의 일부분들을 해체하여 살펴보니 그것들도 각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토끼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최고 영양식품인 우유에 이 해체된 일부분들을 담가줌으로써 트라우마가 아물어가고 새살이 나오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작품13】

이 작품은 같은 토끼를 반대방향으로 뒤집어서 배치하여 마주보게 한 작품이다. 본인이 본인을 바라봄으로써 무언가를 느끼고 깨우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과 바깥사물을 바라보면서 보낸다.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 없는 것이다. 나는 작품을 통해서라도 나를 오래오래 바라보고 싶다. 그저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싶다. 시물라크르인 나는 언제 내가 시물라크르라는 것을 잊을 것인가?

【작품14】

이 작품에서 두 마리의 토끼는 본인과 본인의 동생을 의미한다. 함께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나는 동생을 “우주에서 온 아이”라고 놀린다. 동생은 아장아장 걷는 아기일 적에 토끼를 잡겠다고 즐기치게 토끼를 쫓아갔던 적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겁도 없고 용감하였다. 그래서 우주에서 온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대학졸업생이 될 정도로 자라고 나니 세속에 물들어가는 과정인지

이제는 겁도 내고 조심도 많이 하곤 해서 나는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 느껴지곤 한다. 동생이 그녀의 어린 시절의 본모습을 너무 많이 잃지 않기를 나는 기원한다. 나는 동생을 손잡아 주고 어깨를 기대어 주면서 같이 우주에 인사하고 싶다.



【작품1】 I am a rabbit, flying rabbit, Conte, 128×32cm, 2011



【작품2】 Hey mountain rabbit! rabbit, rabbit,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as you are hoping hoping,
Acrylic painting and conte, 60cm diameter, 2010



【작품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crylic painting and conte and korean paper on canvas, 4 circles with 41cm diameter, 2011



【작품4】 Bye!, Acrylic and oil painting, 130×130cm, 2011



【작품5】 토끼가 물 쏟아서 생긴 얼룩, Oil painting and conte,
2 circles with 41cm diameter, 2011



【작품6】 아이고 허리야, Acrylic and oil painting, 40cm diameter, 2010



【작품7】 은토끼 구하기(은도끼), Acrylic and oil painting,
41cm diameter, 2010



【작품8】 신호등, Acrylic and oil painting, 3 circles with 40cm diameter, 2010



【작품9】 데굴 데굴, Acrylic painting and conte, 80cm diameter, 2010



【작품10】 대한민국 화이팅, Acrylic and oil painting,
3circles with 36cm diameter, 2010



【작품11】 real 달토끼, Acrylic and oil painting, 55cm diameter, 2010



【작품12】 Rabbit milk, Acrylic and oil painting, 3circles wih 31 diameter,
2010



【작품13】 뿔뿔, Acrylic and oil painting, 2circles with 40cm diameter, 2010



【작품14】 언니토끼랑 우주에서 온 아기토끼의 인사, Acrylic and oil painting,
2 circles with 55cm diameter, 2010

Ⅲ. 결 론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머릿속을 늘 맴돌던 "그림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라는 2가지 논의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한 여행을 나는 계속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는데, 어릴 적부터 나의 내면에 스며들어와 각인되어 있던 토끼라는 대상, 즉 정신적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는 불쌍한 대상을 그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다는 바램에 포커스를 두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과연 그렇게 그릴 수 있는가는 스스로에게도 큰 의문이였기에 나는 나의 의도와 기대에 어느 정도라도 부합되는 심리적,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배경 그리고 나아가 불교의 성찰에도 접하여 봄으로써 나의 실험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시도를 병행하였다.

토끼를 그려가면서, 토끼는 내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나의 일부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 토끼는 나일 수도 있고 나는 토끼일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토끼의 트라우마를 풀어주고 싶다는 심리는 실은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에 휩싸이곤 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다. 그래서 더욱더 반복하여 토끼그림을 그려나갔고 몇 번째인가 그림을 마치는 순간 나의 실험이 어느덧 결말에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본고에 수록된 14점의 나의 작품은 내가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다. 나는 이 작품 14점을 일일이 설명하고 스스로 분석하였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저 실험한 것이고 실험 끝에 내가 찾고자 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다가갔다는 즐거움을 느꼈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 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오랜 논의에 대

하여 이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즉 그림이란 시뮬라크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실재를 잊거나 실재를 사라지게 하여 주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실재는 시뮬라시옹 작용에 의하여 시뮬라크르화 함으로써 그 본 모습을 잃고 가상실재로만 남았고 그것이 나의 그림인 것이다.

본인의 이번 작업은, 본인내면으로부터 표출된 대상을 그림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 본인이 찾아 낸 정신 분석학적, 심리적 이론 및 종교적 성찰을 접목하였다는 점 등에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시도된 실험이었기에 객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제3자의 인식과 비교하는 기회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그 분석 역시 객관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초는 주관적이었던 것이 차츰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술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나의 이번 작업을 관람자들이 따스한 눈으로 보아주기를 기대한다. 나는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보다 다양하게 작품들과 이론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이번 작업에서의 내용적 측면 및 표현방식측면에서의 주관성을 개선하고 극복하여 차츰 객관성을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작업에서 발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나의 작업을 보다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참고 도판



【도판1】 Albrecht Durer, <A young hare>, 1502



【도판2】 Lucian Freud <Rabbit on a chair>,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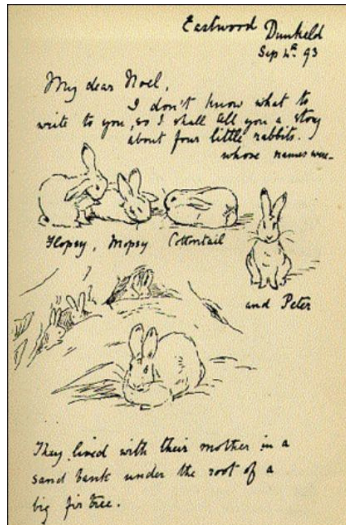
【도판3】 Beatrix Potter, <Rabb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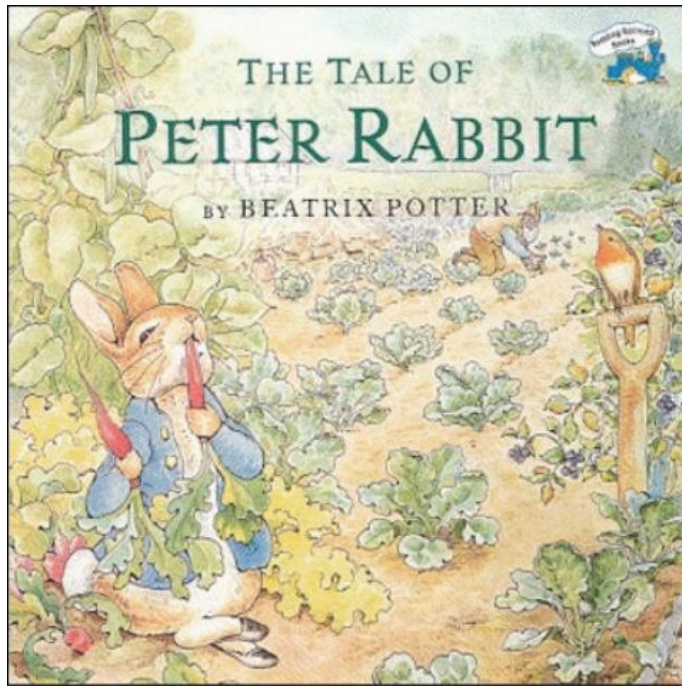
【도판4】 Beatrix Potter, <Rabbits>



【도판5】 Beatrix Poter, <Rabbits>



【도판6】 Beatrix Poter, <Rabb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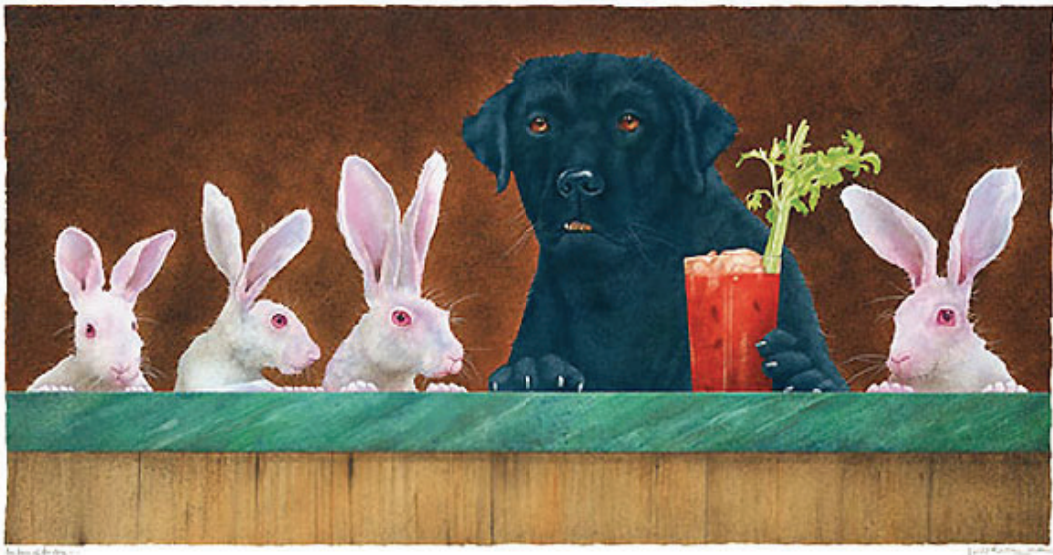
【도판7】 Beatrix Potter, <Rabbits>



【도판8】 Will Bullas, <The hare club>, oil on canvas



【도판9】 Will Bullas, <Mr. Harry buns>, oil on canvas



【도판10】 Will Bullas, <The hare of the dog>, oil on canvas



【도판11】 Will Bullas, <Bad to the Bun>, oil on canvas



【도판12】 Will Bullas, <A fool and his bunny>, oil on canvas

참고 문헌

- 김용욱. (1999). *도올 김용욱의 금강경 강해*. 통나무
김용욱. (2002).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1,2,3*. 통나무
디터 잘츠게버. (2006). *알브레히트 뒤러*. (노성두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데니스 오버바이. (2006). *젊은 아인슈타인의 초상*. (김한영, 김희봉 역).

사이언스북스

- 틀랑 바르트. (1998). *카메라 루시다*. (조광희, 한정식 공역). 열화당
마셜 맥루언. (2002).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이한우 역). 민음사
마리아 카를라 프레테. (2004). *미술이란 무엇인가*. (오병욱 역). 청년사
바실리 칸딘스키. (2000).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베아트릭스 포터. (2003). *피터래빗 이야기*. (신지식, 김서정 역).

프뢰벨행복나누기

- 벤자민 부클로등. (2007). *1900년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배수희, 신정훈등 역). 세미콜론
이경성. (1997). *미술이란 무엇인가*. 일지사
이습. (2005). *이습우화 123가지*. (어린이 문화 연구원편). 영림카디널
이어령. (2010). *십이지신 토끼, 생각의 나무*
에바 헬러. (2002). *색의 유혹*. (이영희 역). 예당
앤디 워홀. (2007). *앤디 워홀의 철학*. (김정신역). 미메시스
월간미술편집부편. (2007).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자크 라캉. (2008). *자크라캉 세미나2*. (맹정현, 이수련 공역). 새물결
장 보드리야드. (2001).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정완상. (2008). *별난용궁 별난생물 별주부전*. *함께 읽는 책*

제프 니콜슨. (2005). 30분에 읽는 앤디 워홀. (권경희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틱낫한. (2003).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장경각
헬 포스터. (1996).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ABSTRACT

A Study of expressing Simulacres related to Fables and
accompanied by Repeat

- Focused on Researcher's works -

Yi hyun-joo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and study the aspect of contents and formative aspect of my art work which were exhibited in my personal exhibition held in May 2011 titled "Two Rabbits"

An experience of childhood is in inner side of everyone. The firsthand experience becomes harder and deeper by reading books or listening stories, soon it is imprinted on our memory. While doing this art work, I draw rabbits unexpectedly. Rabbits which I have seen since my childhood left a strong impression on me, and the image of rabbit, which is poor creature harassed, chased and eaten by the strong, is deep-seated inside of me by reading and listening fables, and this is portrayed naturally through my paintings. It seems that my wishes to take the rabbit out of its emotional trauma has always been in my consciousness or subconsciousness. While I have contacted several theories and introspection to find how to

release the rabbit from the trauma, I realized that a function of repetition which Andy Warhol and Jaques Lacan mentioned was well matched with my work. Likewise, I felt same from repetitive plots of the Buddhist scriptures and introspection of three thousand bowing. The repetition of Andy Warhol and Jaques Lacan makes the real suffered from trauma to be hidden or sink into oblivion. With becoming to be interested in this theory, I felt that I found the first way of how to release the rabbit from the trauma. Consequently, I drew rabbits repeatedly like the rabbit pounding in a mortar under the cassia bark tree with wishes that the rabbit and I who has another rabbit inside of me will be released from our trauma while I were drawing. It is time to combine the Simulation theory of Jean Baudrillard to my work. Baudrillard called the artificial substitute of the real as the Simulacres and he also said that the place we are living is cyber reality, or the delusion of the Simulacres. I decided to do experiment of the Baudrillard's theory. After long conversation with fables in my childhood, I found the emotional trauma of the rabbit. I drew the rabbit repeatedly to release the rabbit from the trauma and let the rabbit be the Simulacres with taking the shell of the real off. All the trauma was disappeared and the rabbit was finally released. I found that the rabbit was being drawn in a form of a doll not a form of an animal. My subconsciousness which has deep affection for the rabbit made the Simulacres of rabbit to be drawn as a form of beautiful doll. Rabbit became the Simulacres in the form of beautiful rabbit doll and shines brightly now.

In this work, I could get a clue to two questions which revolved around in my mind "What is painting?" and "Why am I drawing?" Painting is the Simulacres and I am drawing for the real to be forgotten or disappeared.

Acryltech and oil painting technique were used in this work. Two materials which have different character and texture combined well and gave smooth impression in one frame and this has same meaning as a canvas space with one color field. That means the canvas space of this work is the universe where everything or every colors are integrated and simplified.

With expectation of visitors' sympathy, paintings were displayed to fit the title and theme of the exhibition on the guess that the exhibition room also should be the universe if every painting is small universe.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allow objectivity by analyzing the work with built-in memory, psychological and psychoanalytical approach and religious introspection. With a pleasure of some achievement in this study, I will use this experience as an opportunity to broaden horizon and mature my creative work in the future.